3

광주시, 금호타이어 노사 공동실천협약 졸속 추진 '빈축'

광주형일자리 도입 요구에 노조측 반발…협약식 지연 뒤늦게 문구 삭제…성과주의 만연 등 행정신뢰도 추락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졸속으로 추진해 빈축을

광주시가 협약에 최대 현안인 '광주형일자리' 를 연계시키려다 노조측의 반발을 사는 등 성과 만능주의로 인해 행정신뢰도를 스스로 실추시켰 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6일 오전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 어·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와 광주공장 이 전 추진 관련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어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협약식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이상 지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

광주시가 준비한 협약서에 '금호타이어가 추진 중인 광주공장 이전 및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 획에 대한 행정적 지원협의를 추진하고 이전되는 신공장에는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문구를 사전 조율없이 집어넣어 노조로부터 반발 을산 것.

이 때문에 이용섭 시장 집무실에서는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노조측 관계자가 집무실을 박차 고 나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광주 형일자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신공장에 광주형일자리를 도입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노조는 즉각 문구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문구를 계속 포 함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간 협약서에 '광주형일자리' 문구가 모두 삭제되면서 협약식 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날 해프닝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민주노총이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 주시가 무리하게 협약서에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요구해 반감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시장이 '노사상생도시 광 주'를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사전조율 없이 급하 게 협약식을 추진하는 등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과욕이 불러일으킨 해프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

협약식에 앞서 이 시장은 "사전에 직접 조율을 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협약식이 40분 지연돼 죄송하다"며 "이전되는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측, 시가 함께 논의해나가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금호타이어 업무협약 체결식'이 16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려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대진 금호타이어부사장, 조삼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 관계자들이 협 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市, 상반기 시민 정보화교육 무료 운영

광주시는 고령층 및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사회에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시민 정보화교 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화교육은 2월7일부터 6월24일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

교육은 ▲스마트 세상 따라잡기 with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 ▲웹 포 토샵(Pixlr)으로 사진 디자인하기 ▲파워디렉터 로 UCC 영상 만들기 ▲유튜브(youtube)로 1인 미디어 도전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광주시민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5 개 과정으로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명을 받는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4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6개 과정이 운영됐으며, 7천269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모집과 동시에 마감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보화교육 수요자가 /최권범기자

광주시, 공유촉진 공모사업 본격화

공유부엌·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 진행

광주시가 민간 각종자원과 개인의 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본격 시행한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10월 사업추 진 방향성 검토 단계부터 지역의 공유활동가와 시 공유촉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수렴 해 12월말 사업의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공모사업은 ▲소통하는 '공유부엌 시범사업' ▲공유실천 기업·단체 지정(인정) ▲공유촉진사 업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소통하는 '공유부엌사업'은 갈수록 늘어 가는 1인 가구의 혼밥, 낮은 건강상태, 사회적 고 립 등 사회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가 지정한 공유단체나 기업, 마을공동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기업)에는 최 고 1천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은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공유단체나 기 업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공유광주 로고 사용 권, 광주시 공유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주고 있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은 ▲경기침체, 청년실 업 등 경제관련 문제 ▲고령화·청년주거·공동체 와해 등 복지 분야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 족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 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 등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최근 6개월 이상 공유 활동을 한 이력 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과 마을공 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과 단체, 마 을공동체에 최고 2천만원의 이내 사업비를 줄 예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부엌 공 모사업과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핵심가치로 공유문화가 광주시 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 /최권범기자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Vitamin House 100% 시베리아 야생의 차가버섯을 직수입하여 12배 농축된 동결건조 농축분말로 담아내었습니다.

전남도, 신안 천사대교 개통 준비 총력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시작점…숲지사, 오늘 현장점검

전남도는 오는 2월1일 임시 개통 예정인 신안 천사대교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시작점 으로 관광객 6천만 달성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17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개통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사대교는 국도 2호선 미개통 구간인 신안 압 해도-암태도 간(총 연장 10.8km)을 연결하는 7.2 km 길이의 교량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명위원 회 의결로 정식 대교 명칭을 부여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공사비 5천814억 원을 들여 2010년 9월 첫 공사를 시작, 이번 설명 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7일까지 임시 개통한다.

내 최초로 단일 교량 구간에 사장교와 현수교 공 법이 동시에 적용됐다.

전남도는 천사대교의 개통이 국토 서남권의 지 리적·경제적 가치를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사대교는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의 그랜드 플랜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시작점으로 관광객 6천만명 달성의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영록 지사가 17일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최종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종 점검 회의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목포·무안·신안군 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천사대교는 교량 길이로는 국내 4번째지만 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녹색에너지연구원 4대 원장에 허용호씨

전남도는 16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제4대 원장으로 허용호(59) 후보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임용장을 받는 신임 허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원장후보추 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 다. 응모한 7명 가운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이사장(도지사)에게 추천했고 이사장이 허용호 후보를 최종 선임했다.

곡성 출신인 허용호 신임 원장은 1985년 한국전 력공사에 입사해 33년간 광주전남본부지사장, 본



사 기술기획처장과 상생협력 처장 등을 거쳐 강원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상생협력처장 을 맡으면서 한전의 '에너지밸 리 조성'최초 계획을 수립하 는 등 에너지밸리 초기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허 원장은 "에너지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 리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CMYK